

<http://dx.doi.org/10.17703/JCCT.2021.7.2.97>

JCCT 2021-5-11

경찰부패 요인이 경찰공무원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로 경찰부패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Police Corruption Factors on Corruption Level through Occupational Identity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f Police Officers

전경국* 김택**

Chun, Kyung Kook. Taek Kim

요약 본 논문은 잘 서비스는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 부패를 통제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부패로 가는 구조적 관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부패 요인을 개인적 요인, 조직문화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경찰공무원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로 경찰부패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부패요인 중 조직문화적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은 경찰의 직업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둘째, 법제도적 요인은 경찰의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셋째, 조직문화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은 경찰부패 수준에 정적 영향이 있었다. 즉, 경찰 부패의 조직문화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이 심화 되면 경찰의 부패수준에 이에 상응해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은 조직문화적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에 대해 부적 매개효과가 있었다. 즉 경찰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을 강화하면 경찰 부패 수준을 낮추는 완화효과가 있었다.

주요어 : 경찰부패, 직업정체성, 조직시민행동, 매개효과

Abstract The issue of controlling police corruption is very important that in terms of public services where police administration is in direct contact with citizens. In this study, individual, organizational, cultural, and legislative factors are classified as independent factor variables that contribute to police corruption, and the effect of these corruption factors on the level of police corruption, and the role of occupational identity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f police offices in this relationship are analyzed. A survey is conducted on the public citizens for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organizational, cultural factors and legal-legislative factors have negative influence on the occupational identity. Second, legislative factors has nega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ird, organizational, cultural and legislative factors have positive effects on police corruption. Finally, in terms of the effect of corruption factors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rough occupational identity, organizational, cultural and legal-legislative factors had negative mediating effect on it.

Key words : Corruption of Police Officers, Occupational Identity, Organizational Civic Behavior. Mediation Effect

*정희원, 선린대학교 국방기술의무계열 교수(주저자),
**정희원,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교신저자)
접수일: 2021년 2월 21일, 수정완료일: 2021년 3월 25일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6일

Received: February 21, 2021 / Revised: March 25, 2021
Accepted: April 6, 2021
**Corresponding Author: chriskim@jwu.ac.kr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JungWon Univ, Korea

I. 서 론

1. 연구목적

김영삼, 김대중 정부 탄생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민주화 과정을 걸친 지 거의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학력이 대폭 상승하였고 이와 더불어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근대적 시민으로서의 시민사회 인식의 성숙하게 되었다. 또 공무원 사회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 기능이 점점 강화되고, 관료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진행되어 한국 공무원 사회의 비리와 부패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경찰 조직의 부정부패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의 치안서비스는 국민들 생명과 신체,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민들 삶과 매우 밀착한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경찰의 부패와 비리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경찰공무원은 총 122,913명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 수는 총 3,427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4년 856명, 2015년 793명, 2016년 778명, 2017년 723명 그리고 2018년도는 417명, 2019년 8월 말까지 269명으로 집계되어 2014년에 비해 거의 과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1].

매년 비리 경찰 공무원의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하고 다른 영역의 비리 공무원에 비해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 경찰의 절대치는 치안행정이 국민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으로 인하여 검찰의 진행 문제가 사회의 큰 화두로 등장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찰의 수사권 강화가 제시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오랜 역사적 경험에 의해 경찰 역시 부패집단이라는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경찰의 부패 행위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제하는 효과적인 전략의 제시가 현 시점에서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학계에서도 경찰 부패에 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개인차원에서 개인 자질과 경찰부패와의 관계 [2,3], 조직차원에서 경찰 직무와 부패관계 [4],

직업적 사회화와 비리관계 [5], 조직 정의와 내부고발자 관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또 문화적 차원에서 비밀주의와 냉소, 고립현상과 경찰 청렴도 관계[6],, 전반적인 경찰 부패 요인과 경찰 부패와의 관계 [7].경찰 부패 통제 전략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 같이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경찰 부패의 원인과 이를 통제하는 방법에 관해 연구하였으나 경찰 부패의 주요 요인에서 최종적으로 경찰 부패 행위로 진행되는 총괄적인 구조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시도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 부패 요인이 경찰 비리와 일탈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경찰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을 훼손하여 경찰 부패를 증폭시킨다는 구조모형을 제시하였다.

경찰의 부패 요인, 즉 개인적 요인, 조직문화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이 경찰의 부패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또 이 경찰 부패 요인이 경찰관 개인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쳐 경찰 부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만약 경찰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이 경찰 부패 행동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검증되면 단계적으로 통제하기 힘든 부패요인 대신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을 고양하는 방법론 역시 경찰 부패를 통제하는 중요한 제도적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8].

II. 이론적 배경

1. 경찰 부패

경찰부패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첫째, 경찰관의 공적 직무의 일탈의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금전획득, 또는 지위 획득, 영향력 강화나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법적 또는 공공의 의무 규범을 벗어나 일탈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부패를 특히 뇌물 수수 행위와 관련해서 이익에 치중한 나머지 공권력을 오용(misuse)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둘째, 경업유착 구조의 한 면으로 볼 수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시장이론을 근거로 관료제가 경제에 대하여 광범위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서 [9]. 부패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 부패가

발생한다고 본다.

경찰 부패의 원인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김택의 연구를 참고하여 개인적 요인, 조직문화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요인은 경찰 부패를 경찰 개인의 자질, 또는 인성의 문제로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의 대표적 이론이 '썩은 사과'이론이다. 사과 상자 안에 하나의 썩은 사과가 있으면 나중에는 상자 안의 전체 사과가 썩는다고 보고 이 썩은 사과 하나, 즉 자질과 인성이 나쁜 경찰관을 사전에 빨리 제거하는 것이 경찰 부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주장한다 [10].

조직문화적 요인의 대표적인 이론이 '침묵코드'이다. 침묵을 단순히 '발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조직의 모순이나 비리에 대해 못 본 척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보는 관점이다[11]. 한국 관료 사회에서 이 침묵코드가 횡행하게 된 이유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 문화적으로 학연, 지연 등 인맥을 중시하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출발한 위계적 조직 문화 등 잘못된 유교적 관습이 지속되어 왔고, 정치적으로 민주화 과정이 늦어짐에 따라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못해 사회의 투명성과 감시기능이 약화되어 왔고, 또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공무원 관료제의 특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법제도적 원인으로 경찰 공무원 보수 및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경찰 직무의 특권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동기가 존재할 수 있다. 이 부패의 대표적인 예로 유흥업소와 경찰관이 유착관계를 들 수 있다. 또 경찰관 서로간의 동료의식으로 인해 비리가 드러나는 경우에도 징계를 하지 않거나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 세 가지 경찰 부패 요인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상호작용함으로써 현재 한국 경찰의 부패 정도가 심화되고 그 개선을 힘들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경찰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서비스로 국민들 삶에 가장 밀착된 공공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 부패가 심해지면 전반적인 정책당국과 공공의 신뢰에 상당한 훼손을 초래한다. 즉, 경찰 부패는 부도덕성의 상징이고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경찰관과 시민을 상호간에 위선자로 여기게 하고 사회의 냉소주의를 조장하며, 사회질서를 혼란케 한다 [11]. 따라서 경찰 공공서비스와 경찰 부패에 대한

학계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경찰 부패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홍태경 [12].은 경찰 일탈과 비리의 결정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을 선정하여 충동성과 양심이 경찰 부패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았다. 경찰의 청렴성이 경찰 부패태도에 중요한 결정 변인으로 보았고, 구체적으로 경찰 개인의 준법의식, 징계 경험, 그리고 자기통제력이 경찰부패의 중요한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상운은 경찰부패 요인으로 공식적 부패원인과 외부영향 원인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13].

2. 직업정체성

정체성(identity)은 사회과학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자기다움의 사상을 뜻한다 [14]. 이에 반해 직업정체성은 전문직 개념에서 접근하여 전문 직업성, 전문직 정체성, 전문직 태도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전문직을 사회적으로 독립적 혜택이 주어지는 배타적 직업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배치되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직무라고 정의 하였다 [15].

직업정체성 이론은 크게 구조이론, 과정이론, 권력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구조이론은 기능론적 시각에서 체계적인 이론의 존재, 전문적인 권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특권, 공식 비공식으로 강행되는 윤리요강, 전문가 문화 등의 다섯 가지를 전문가의 특성으로 정의한다[16]. 과정이론은 주로 전문직의 형성과정에 중점을 두는데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의 설립, 전문직 협회의 창립, 핵심적 과업의 명확화, 과거 유사 직업간의 갈등 고조, 현 유사직업과의 갈등 고조, 윤리 강령제정이라는 규칙적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 권력이론은 직업집단들 간의 갈등과 투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전문직의 독점적 지위의 확립을 역사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갈등론적 시각에 입각하여 직업정체성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다.

직업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서비스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직업정체성과 직무스트레스 관계에 대해 [17]. 요양보호사를, 사회복지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직업정체성의 역할을 조사하였다 [18]. 경찰 조직에서 직업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선행연구가 매우 미비한

상태인데 여성경찰관의 직업정체성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효능감을 통한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는데 대부분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19]. 경찰관 개인의 직업정체성은 아니지만 조직 차원에서 경찰조직의 정체성 인식에 관해 이론적 고찰을 시도한 바가 있다 [20]. 한편 전경국, 김택은 경찰 부패요인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찰의 직업정체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경찰의 부패 요인 중 조직문화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이 경찰관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업정체성의 정적 유의적인 조절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경찰 자신의 직업정체성이 높아지면 경찰의 조직문화적 부패 요인이나 법적제도적 부패 요인이 상승해도 경찰관의 조직시민행동이 낮아지지 않는 직업정체성의 경찰부패에 대한 일종의 완화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1].

3.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내의 직무관련 요인이 아닌 별개의 요인, 또는 직무관련 범주를 넘어서는 조직원의 일반시민으로서의 시민윤리 행동을 말하며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조직성과를 가져온다.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는 Organ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개인의 직무행동과 직무성과간의 상관관계가 별로 높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직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요인으로 직무외적인 조직시민행동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조직시민행동은 공식적인 보상 시스템에 의해 직접적으로 혹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유재량적인 개인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22]. Smith & Organ(1983)의 조직시민행동을 부작위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지만 직무관련 교육과 훈련을 통하지 않은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으로써 직무 기술서에 명시된 부분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찰 직무의 관점에서 보면 경찰의 뛰어난 정보능력, 수사 능력, 검거능력 등 직무능력이 경찰 부패의 사전적 방지 역할까지 수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경찰의 조직시민행동 의식이 낮으면 국민들은 경찰 부패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피해를 겪고,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경찰 조직에서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경찰부패의 선행변인으로 한 연구는 아직 없다. 김영환은 경찰공무원의 상관의 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고 상관의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집단응집력의 매개효과가 있다 [23]. 반면 경찰의 조직몰입, 직무만족, 의사소통 등 직무관련 변인을 매개로 경찰의 학습능력과 경찰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24]., 전경국, 김택은 경찰의 개인적, 조직문화적, 그리고 법제도적 부패요인 모두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한국 경찰관의 조직시민행동이 경찰 부패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직 없으나 경찰조직의 침묵규범 이론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왕따 문화, 학연과 지연을 중시하는 잘못된 고착된 유교관습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조직시민행동의 활성화 정도가 경찰의 부패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조직시민행동이 경찰의 부패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25].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본 연구는 경찰의 부패요인이 경찰의 부패수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는데 있다. 경찰 부패 결정요인으로 개인적 요인, 조직문화적 요인, 그리고 법제도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검증한 바 있다. 또 경찰부패요인이 경찰의 부패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찰의 직업정체성을 크게 훼손시켜 경찰의 부패행위를 더 강화하고 고착화 시킬 수 있다. 경찰 임용 전이나 임용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경찰관으로서의 뚜렷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나 내부의 부패 문화에 젖어들게 되면 자신의 임관 초기에 가지고 있는 경찰의 의무, 시민에 대한 봉사관 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힘든 직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은 현실에서는 쉽게 부패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

경찰의 낮은 직업정체성 수준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시민의 행동 윤리마저 쉽게 훼손시킬 수 있다. 서로 조직원간의 사정을 잘 아는 상황

에서 경찰 조직의 부조리를 외면하거나 오히려 감싸주고 더 나아가 경찰조직의 부조리를 비난하고 고발하는 동료 경찰관을 왕따시키는 문화로 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찰의 부패요인은 경찰의 부패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찰 개인의 직업관, 그리고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조직시민행동 양식까지 훼손시켜 경찰의 부패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가설 H1. 경찰공무원의 부패 요인은 부패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H2. 경찰공무원의 부패요인은 직업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H3. 경찰공무원의 부패요인은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H4. 경찰공무원의 직업정체성은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H5. 경찰공무원의 직업정체성은 부패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H6. 경찰공무원의 조직시민행동은 부패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H7.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은 경찰공무원의 부패 요인과 부패수준 사이에 매개효과가 있다.

2. 자료 수집과 표본의 일반적 특성

자료수집은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간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10곳을 선정하여 경찰의 부패요인에 대한 일반인 500명의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면 총 422부이다. 그 중 남자는 전체의 45.7%, 여자는 54.3%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전체의 29.9%, 30대가 22.7%, 20대 이하가 20.9%의 순으로 나왔다(<표 1>). 학력별로 보면 대졸 학력이 전체의 3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졸이 27.0%, 고졸 이하 학력자가 22.0%의 순으로 나왔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문직이 2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무행정직이 23.7%, 자영업이 18.0%, 학생 및 기타가 14.5%의 순으로 나왔다.

3.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1) 측정도구 탐색적 요인분석

<표 1>는 경찰부패요인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

도를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요인1은 ‘개인적 요인’, 요인2는 ‘조직문화적 요인’, 요인3은 ‘법제도적 요인’으로 인식되었고, 요인적재값은 모두 0.5 이상, 각 요인에 해당하는 고유값은 1.0 이상으로 나오고, 3개의 요인에 설명하는 누적 변동설명력은 77.823%로 50.0% 이상으로 나와 경찰부패요인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양호하게 나왔다. 또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 α 값을 구한 결과 개인적 요인은 0.793, 조직문화적 요인은 0.911, 법제도적 요인은 0.865로 모두 0.7 이상으로 나와 경찰부패요인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도 양호하게 나왔다.

직업정체성 측정도구에서는 b1 문항의 요인적재값이 0.5 이하로 나와 이 설문문항을 제거한 다음 탐색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최종 요인분석 결과 직업정체성, 조직시민행동, 부패수준 측정문항의 요인적재값은 모두 0.5 이상으로 나왔고, 고유값은 1.0 이상, 변동설명력은 50.0% 이상으로 나와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양호하게 나왔다(<표 2>). 또 Cronbach α 값도 직업정체성은 0.847, 조직시민행동은 0.920로 0.7 이상으로 나와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는 양호하게 나왔고, 경찰부패수준은 0.697로 0.7에 약간 못 미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왔다.

2) 측정도구 확인적 요인분석

표 1. 경찰부패요인 측정도구 요인분석

Table 1. Factor Analysis of Police Corruption Measurement

개인요인		조직문화요인		법제도적 요인	
설문문항	요인적재값	설문문항	요인적재값	설문문항	요인적재값
a11	0.663	a21	0.854	a31	0.530
a12	0.582	a22	0.770	a32	0.825
a13	0.573	a23	0.587	a33	0.656
		a24	0.663	a34	0.864
		a25	0.809		
고유값=3.751 누적변동설명력=31.255 Cronbach α =0.793		고유값=3.247 누적변동설명력=58.316 Cronbach α =0.911		고유값=2.341 누적변동설명력=77.823 Cronbach α =0.865	

표 2. 직업정체성, 조직시민행동, 부패수준 측정도

Table 2. Job Identity, Organization civic Behavior, Corruption Factor

직업정체성		조직시민행동		부패수준	
설문문항	요인 적재값	설문문항	요인 적재값	설문문항	요인 적재값
b2	0.664	c1	0.857	d1	0.667
b3	0.811	c2	0.888	d2	0.676
b4	0.822	c3	0.881	d3	0.707
b5	0.587	c4	0.902	d4	0.837
b6	0.835	c5	0.835		
b7	0.775				
고유값=3.415, 변동설명력=56.920, Cronbach α =0.847		고유값=3.808, 변동설명력=76.158, Cronbach α =0.920		고유값=2.103, 변동설명력=52.566, Cronbach α =0.697	

모두 0.5 이상으로 나와 측정도구의 집중타당도도 양호하게 나왔다. 한편 <표3> 측정모형의 적합도에서는 평균 $\chi^2=2.402$ 으로 0.3 이하 기준치를 만족하였고, GFI=0.906, TLI=0.904, CFI=0.929로 모두 0.9 이상 기준치를 만족하고, 이에 반해 RMSEA=0.062로 0.8 이하 기준치를 만족하여 전체적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왔다.

<표2>은 경찰부패요인, 직업정체성, 조직시민행동과 경찰의 부패수준 측정 설문문항의 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의 측정모형을 적용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표준회귀계수가 전부 0.5 이상이고 유의적으로 나와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C.R.값 역시 모두 0.7 이상, AVE는

표 3.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Table 3. Verifying Factors in Measurement Tools

측정 문항	구성개념	비표준 회귀계수	표본 오차	표준 회귀계수	t 값	C.R.	AVE
a11	개인 요인	1	0.602			7.613	0.587
a12		1.568	0.86	0.103	15.245***		
a13		1.297	0.781	0.100	12.999***		
a21	조직 문화 요인	1	0.796			8.798	0.713
a22		1.057	0.83	0.041	25.732***		
a23		1.005	0.765	0.053	18.830***		
a24		1.124	0.87	0.049	23.001***		
a25		0.93	0.694	0.054	17.319***		
a31	법제도적 요인	1	0.89			8.102	0.665
a32		0.677	0.686	0.035	19.101***		
a33		0.836	0.852	0.031	27.027***		
a34		0.632	0.663	0.035	17.817***		
b2	직업 정체성	1	0.64			7.119	0.509
b3		1.184	0.741	0.092	12.823***		
b4		1.383	0.776	0.093	14.899***		
b6		1.405	0.812	0.09	15.634***		
b7		1.174	0.71	0.066	17.884***		
c1	조직 시민 행동	1	0.778			8.448	0.699
c2		0.979	0.768	0.044	22.308***		
c3		1.11	0.73	0.065	17.098***		
c4		1.202	0.807	0.059	20.407***		
c5		1.158	0.803	0.056	20.795***		
d1	경찰 부패 수준	1	0.529			7.100	0.524
d3		1.035	0.558	0.095	10.901***		
d4		1.841	0.886	0.151	12.170***		
측정 모형 적합도	$\chi^2=213.774$ ***, 평균 $\chi^2=2.402$, GFI=0.906, TLI=0.904, CFI=0.929, RMSEA=0.062						

*** p<.001

5.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지각하는 경찰부패요인이 경찰관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로 경찰의 부패수준에 미치는 구조적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5.0과 AMOS 25.0이다. 구체적인 통계 방법론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하고 Cronbach α 값을 구해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를 살펴보았다. 또 구조방정식 측정모형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조사하였다. 기초분석으로 연구대상변수인 경찰부패요인, 직업정체성, 조직시민행동, 그리고 경찰관 부패수준의 기술통계와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찰부패요인이 경찰관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로 부패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의 인과모형을 적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의 간접효과도 검증하였다.

IV. 분석결과

1. 기초분석

<표 4>는 연구변수인 경찰부패요인, 직업정체성, 그리고 조직시민행동, 경찰부패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수들간의 상관계수를 정리한 표이다. 표에 의하면 경찰의 직업정체성이 평균 3.32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조직시민행동이 평균 3.25, 그리고 경찰부패요인 중 개인적 요인이 평균 3.11, 법제도적 요인이 평균 3.08, 조직문화적 요인이 평균 3.07의 순으로 나왔다. 연구변수들간의 상관관계에서는 경찰부패요인과 직업정체성, 경찰부패요인과 조직시민행동간에는 유의적인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또 경찰부패요인의 하위변인들간에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2. 구조방정식 결과

1) 인과모형 검증

경찰부패요인이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로 경찰부패수준에 미치는 구조적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 부패요인이 경찰의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문화요인은 $\beta=-0.600(p<.001)$, 법제도적요인은

표 4. 연구변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Table 4. Variable Coreerlation and Descriptive Statistics

구분	경찰부패요인			직업 정체 성	조직 시민 행동	부패 수준
	개인적	조직 문화 적	법제 도적			
개인적 요인	.					
조직문화적 요인	.835**	.				
법제도적 요인	.784**	.804*	.			
직업정체성	-.579*	-.652	-.629	.		
조직시민행동	-.635*	-.661	-.659	.862*	.	
경찰부패수준	.376**	.425*	.230*	-.418	-.437	.
평균±표준편차	3.11±1.15	3.07±1.20	3.08±1.23	3.32±0.91	3.25±1.06	2.35±0.86

** p<.01, *** p<.001

$\beta=-0.610(p<.001)$ 로 유의적인 부적 영향력이 있는 반면 개인요인은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표 5>는. 경찰부패요인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법제도적요인이 $\beta=-0.439(p<.001)$ 로 유의적인 부적 영향력이 있었으나 개인요인과 조직문화요인은 경찰의 조직시민행동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한편 직업정체성은 조직시민행동에 $\beta=0.890(p<.001)$ 로 유의적인 정적 영향력이 있었다.

경찰부패요인이 경찰부패수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서는 조직문화요인은 $\beta=0.569(p<.001)$, 법제도적요인은 $\beta=0.907(p<.001)$ 로 유의적인 부정적 영향력이 있었고, 직업정체성은 $\beta=-0.567(p<.01)$, 조직시민행동은 $\beta=-0.953(p<.001)$ 로 유의적인 부적 영향력이 있었다. 모형의 적합도에서는 평균 $\chi^2=8.065$ 로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고, GFI=0.884, RMSEA=0.082로 기준치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나 NFI=0.907, CFI=0.925로 기준치를 만족시켜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왔다.

2) 효과 분석

경찰의 부패요인이 경찰부패수준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부패요인이 직업정체성을 매개로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직업정체성의 매개효과에서 조직문화요인에서 $\beta=-0.534(p<.001)$, 법제도적요인은

표 5. 인과모형 검증
Table 5. Verification of Casul Model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표준 회귀 계수	t 값	p 값
개인요인	직업 정체성	0.252	0.206	0.257	1.224	0.221
조직문화요인		-0.304	0.079	-0.600	-3.844	***
법제도적요인		-0.272	0.081	-0.610	-3.34	***
개인요인	조직시민행동	0.253	0.166	0.186	1.526	0.127
조직문화요인		0.026	0.061	0.036	0.422	0.673
법제도적요인		-0.272	0.064	-0.439	-4.219	***
직업정체성		1.236	0.116	0.890	10.629	***
개인요인	경찰부패수준	0.230	0.213	0.198	1.080	0.280
조직문화요인		0.343	0.079	0.569	4.322	***
법제도적요인		-0.481	0.096	0.907	4.990	***
직업정체성		-0.675	0.245	-0.567	2.752	0.006**
조직시민행동		-0.816	0.185	-0.953	-4.407	***
측정 모형 적합도	$\chi^2=3426.585***$, 평균 $\chi^2=8.065$, GFI=0.884, NFI=0.907, CFI=0.925, RMSEA=0.082					

** p<.01, *** p<.001

$\beta=-0.543(p<.001)$ 로 유의적인 부적 간접효과가 있었고, 경찰의 부패요인이 경찰관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로 경찰부패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조직문화요인에서 $\beta=0.206(p<.05)$, 법제도적요인에서 $\beta=0.704(p<.001)$ 로 유의적인 정적 간접효과가 있었다. 한편 직업정체성이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로 경찰부패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의 간접효과는 $\beta=-0.848(p<.001)$ 로 유의적인 부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표 6. 효과분석
Table 6. Effective Analysis

독립변수	매개 변수	종속 변수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개인요인	직업 정체성	조직 시민 행동	0.186	0.129	0.315
조직문화 요인			0.036	-0.534***	-0.498**
법제도적 요인			-0.439**	-0.543***	-0.982***
개인요인	직업 정체성, 조직 시민 행동	경찰 부패 수준	0.198	-0.123	0.175
조직문화 요인			0.569***	0.206*	0.775***
법제도적 요인			0.907***	0.704**	1.611**
직업정체성	조직 시민 행동	경찰 부패 수준	-0.567***	-0.848***	-1.415**

* p<.05, ** p<.01, *** p<.001

IV. 결 론

경찰부패를 통제하는 문제는 경찰 행정이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공공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경찰 행정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일선 행정서비스이고, 또 경찰 부패의 문제는 정치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부패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 조직문화적 요인, 그리고 법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이 부패 조장 요인들이 경찰 부패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경찰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의 역할을 검증하였다.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의 부패 요인 중 조직문화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은 경찰의 직업정체성에 유의적인 부적 영향력이 있었지만 개인요인은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즉 경찰의 부패를 유발하는 조직문화요인이나 법제도적요인이 높아지면 경찰관의 직업정체성은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다.

둘째, 경찰의 부패요인이 경찰관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법제도적요인은 유의적인 부적 영향력이 있었다. 즉, 경찰의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적요인이 상승하면 경찰의 조직시민행동은 반대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직업정체성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적인 정적 영향력이 있었다. 즉, 경찰관의 직업

정체성이 상승하면 경찰관의 조직시민행동도 같이 상승하였다.

셋째, 경찰부패요인이 경찰부패수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서는 조직문화요인과 법제도적요인은 유의적인 부정적 영향력이 있었으나 개인요인은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즉 경찰의 부패를 유도하는 조직문화요인이나 법제도적요인이 상승하면 경찰의 부패수준도 따라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은 유의적인 부정적 영향력이 있었다. 즉 경찰관의 직업정체성이 높아지거나 조직시민행동이 높아지면 이와 반대로 경찰의 부패수준이 유의적으로 하락하였다.

넷째, 경찰의 부패요인이 경찰관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로 경찰부패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조직문화요인과 법제도적요인에서 유의적인 정적 간접효과가 있었다. 즉, 경찰의 조직문화요인과 법제도적요인이 상승하면 경찰관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의 악화를 불러오고 이는 또 다시 경찰의 부패수준을 유의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왔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경찰 부패 통제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효율적인 교육 기능의 강화해야 한다. 개인적 부패 요인이 부패 수준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고, 또 경찰관 부패의 총효과 중 매개효과의 비중을 살펴보면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의 간접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조직문화요인에서는 26.6%, 법제도적요인에서는 43.7%를 차지하여 경찰관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이 경찰관 부패수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효과성이 의심스러운 구태의연한 경찰관 개인 도덕 강화 교육보다는 경찰관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즉 경찰관의 선행사례 또는 모범사례 등 구체적인 사례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우호적인 반응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조직 내부 근무환경과 보상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위험을 감수하는 경찰 직무의 특성상 경찰관은 항상 이에 대응하는 보상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경찰 직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단순한 경제적인 의미의 차원을 넘어 경찰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등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을 함양

하는 효과도 있다.

셋째, 경찰 비리에 관련된 전국적 규모의 데이터베이스 가동하여야 한다. 경찰 부패는 조직문화적이고 법제도적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를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구사회적 요인별로 경찰 비리나 일탈 유형을 파악하여 핀포인트식 제재를 지속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시민사회 참여는 지역의 유흥이나 건설 등 비리 관련 지역 토호 세력이 참여하는 등 오히려 경찰 개혁의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경찰 부패가 조직문화적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의 성격이 강하므로 경찰 개혁을 위한 내부 자정 노력은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협력 모습은 경찰 인사나 징계 처리시 전국적 대표성을 갖는 시민단체의 참여의 형태로 대체해야 하고, 이 시민단체를 통한 여론 형성으로 국회에 법제도적 개선을 정치적 압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찰 부패요인과 경찰 부패 수준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연구이기 때문에 조직 내부의 실상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으로서 정확한 평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조직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경찰관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긍정적인 면은 과대평가를 하고 부정적인 면은 과소평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 과제로 경찰 부패에 관한 일반시민의 인식과 경찰관의 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 인식의 괴리가 심한 경우 경찰의 대국민 홍보전략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References

- [1] National Police Agency, 2019 Police Statistical Data, 2020
- [2] Hong, Tae Kyong, Police control and Improvement: focused on Police Index, Korean Corruption Review, 16(1):11-132, 2011
- [3] Park, Young Joo, Study on Influence of Police Attitude, Police Study, 13(1), 175-201, 2013
- [4] Kim, Ho seob, Empirical Analysis on Police corruption mind and socialization, Korean Policy studies, 13(1), 87-106, 2004

- [5] Yoon Tae Bum, Study on Police structure: focused on Klitgaard Model, Korean Policy Studies
- [6] Cho, Yoon OH, Study on Whistles of Police, Korean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Review, 19, 416-450, 2010
- [7] Kim, Taek, Study on Causes of Police corruption : focused on rotten apples and organization structure, Korean Corruption Review, 20(2), 45-63, 2015
- [8] Kim, Taek, Citizen Perception of Police Corruption, Dong Guk University Dissertation, 20-70, 2016
- [9] Kim Young Jong, New Corruption Study Book, 50-150, 2017
- [10] Kim, Taek, Citizen Perception of Police Corruption, Dong Guk University Dissertation, 20-100, 2016
- [11] Sim Min Kyoo. Park Jong Sung, The Influence of Supervisor's impersonal supervision on Organizational Silence in Police Organizations- Focused on the Control Effect of Self-Respect, Korean Police Review, 19(2), 115-140, 2017
- [12] Hong, Tae Kyong, Police control and Improvement: focused on Police Index, Korean Corruption Review, 16(1): 11-132, 2011
- [13] Kim Sanf Woon, Study on Cause Analysis and Corruption Patterns, Korean Corruption Review, 17(3), 93-112, 2012
- [14] Kim Kyung Dong, Contemporary Sociology, Park Young Sa, 20-100, 1982
- [15] Cho, Choo Yong, A Study on the Securing Professionalism of Caregiver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ging Research in Korea, 16: 9-40
- [16] Greenwood, E. (1957). Attributes of a Profession. Social Work. 2(3): 45-55.
- [17] Oh, Jin A, Kwon Jin Ok, K, Occupational identity and job stress of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Journal of Community Nursing, 16: 9-40, 2007
- [18] Choi, Youn Sun, Effects of Professional Occupational Identity and Leadership of Top Managers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Immersion of Social Welfare Employees, Social welfare practice, 10: 75-104, 2011
- [19] Yoo, Chae You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Identity and Job Attitude of Korean Female Police Officers, Ph.D. Dissertation at Dongguk University, 2010
- [20] Han Sang Am, Kim, Myoung Dae, Police organization Identity and Perception, Korean Police Review, 14(1), 181-211
- [21] Kim, Taek, Citizen perception of Police Corruption, Ph.D. Dissertation at Dongguk University, 2010, 20-100, 2016
- [22] Organ, D. W. .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Good Soldier Syndrome,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1988
- [23] Kim Young Hwan, The Effects of Senior Leadership on the Organizational Citizen Behavior of Police Officials in the Police Organization: Focusing on the Parameters of Collective Cohesion, A local government study, 8(1): 1-22, 2004
- [24] Ma, Kyung Suk, A Study on the Influence of Learning Organizations in the Police on Organized Citizen Behavior, Ph.D. Dissertation at Dongguk University, 2010
- [25] Kim, Taek Chun Kyung Kook, Citizens' Perception on the Effect of Corruption Factors on Organized Citizens' Behavior: Focusing on the Control Effect of Occupational Identity, Korean Corruption Review, 2020, 25(3), 177-194, 2020